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427-460  
<https://doi.org/10.29212/mh.2019..110.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이라크 전쟁의 전쟁양상 변화 원인에 대한 고찰

-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중심으로 -

김현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 유사이론 및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고찰
3. 이라크 전쟁의 양상
4. 전쟁양상 변화 원인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6. 결론

## 1. 서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국가 간 전쟁인 재래식 전쟁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전쟁인 비재래식 전쟁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

\*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다.1)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전쟁인 재래식 전쟁과 점령국 지위를 받은 미국과 이라크 내에서 새롭게 등장한 저항세력들과의 전쟁인 비재래식 전쟁이 그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던 도중 전쟁양상이 변화했다. 미국 중심의 연합군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빛났으나, 비재래식 전쟁에서는 압도적 화력과 최첨단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열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반란세력(insurgents)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고전한 이유를 제4세대 전쟁에서 찾기도 한다.2) 이라크 전쟁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인 제4세대 전쟁이었으나 국가 간 전쟁인 제3세대 전쟁의 수행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 간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현실감 있게 와 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Worldometers”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는 195개의 국가가 있다.3) 195개의 국가들에는 정부가 있고 영토가 있다. 또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과연 이렇게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이 새로운 양상의 전쟁일까?

2013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개입하자 우크라이나는 적극적 대응을 하며 돈바스 전쟁을 실시하게 되었다.4) 이처럼 국가 간 전쟁은 지금도 존재하고

---

1) 손석현, 『대반란전(COIN) 전사연구-미국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2.

2) 조한승,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대한정치학회, 2010, pp.145~168.

3) 국가의 수는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 판단한 195개의 국가 수는 193개의 UN가입국과 2개의 국제연합 observer 국가를 포함한 수치이다. <http://www.worldometers.info/geography/how-many-count-ries-are-there-in-the-world/> (검색일 : 2018년 11월 19일)

4) 전갑기 외 3명, 『2014년 돈바스 전쟁의 작전경과 및 작전적 특성』, 육군군사연구소, 2018, p.1.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전쟁양상 예측은 일부 저항세력들의 폭력으로부터 기인한 충격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을 연구하는 것 보다 국가 간 전쟁이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으로 변화하게 된 사례의 연구는 보다 의미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연합국의 훌륭한 재래식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그다드를 조기에 점령할 수 있었고, 후세인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군사작전 이후에 적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즉,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서의 성공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양상이 변화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다음의 두 가지의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반란전으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대반란전으로 전이된다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이 왜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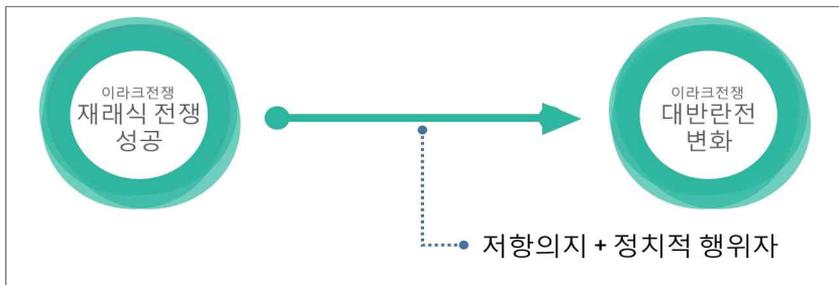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은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sup>5)</sup>의 결합으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다.”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sup>6)</sup>

5) 본 고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행위자는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이성”의 주된 사회적 행위자인 “정부”를 대체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세부 내용은 본 고의 4장 2절을 참고바란다.

6) 김만수 역의 전쟁론에서는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번역을 “독특한 삼중성”이라 칭하였다. 하지만 대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표현을 사용한다.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p.82.

를 분석의 틀로 하여 증명한다.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전쟁의 속성으로 폭력성과 우연 및 개연성 그리고 이성의 영역이 카멜레온과 같이 성질을 바꾸어가며 전쟁에 드러난다.<sup>7)</sup>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이후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에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면 전쟁의 변화 요인을 고찰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가설

이 연구의 핵심은 전쟁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4세대 전쟁의 시각이나,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쟁의 시각처럼 전쟁 자체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과는 다르다. 국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국가 간 전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국가 간 전쟁이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으로 전환되는 이유를 찾아내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반란전과 유사한 다양한 이론을 살피고 대반란전의 시각에서 분석한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분석의 틀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이라크전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까지 개략적인 경과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재래식 전쟁의 성공으로부터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요인의 가설을 앞에서 설명한 분석의 틀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제시

7) 위의 책, p.82.

하며 글을 마친다.

## 2. 이론적 고찰 : 유사이론 및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고찰

### 가. 대반란전과 유사한 다양한 이론의 고찰

많은 학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주요군사작전은 차치(且置)한 가운데 이후에 있던 전쟁만을 놓고 제4세대 전쟁, 새로운 전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2003년 5월 1일 군사작전 종료 이후로부터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재래식 전쟁에 대한 해석은 기피한 채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만을 다룬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은 분명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며, 이를 무시하고는 이후 변화된 전쟁수행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전쟁 중 전쟁양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4세대 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이론으로는 이 변화를 연구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대반란전으로 정의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4세대 전쟁과 새로운 전쟁의 이론적 고찰을 먼저 실시한다.

먼저, 제4세대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이후 전쟁수행 방식을 제4세대 전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국가 간 전쟁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이 혼합되어 있어 전쟁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불가하다. 제4세대 전쟁이라는 용어는 1989년 윌리엄 린드(Lind, William S.)와

8) 켈도어는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에서 이라크 침공은 사실 전쟁이 아니었으며 훈련에 가까웠다고 이야기 했다. 켈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p.219. 토마스 햄즈는 『21세기 4세대 전쟁』에서 2003년 3월 당시 부시 행정부는 수행중인 전쟁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첨단 재래전으로 종결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토마스 햄즈, 최중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p.18.

그의 동료들이 미국의 Marine Corps Gazette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sup>9)</sup> 그들은 전쟁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크레펠드(Creveld, Martin Van.) 역시 전쟁을 명백하게 당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적 구조와 함께 진화한다고 보았다.<sup>10)</sup> 햄즈(Hammes, Thomas X.)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하며 전쟁의 진화에 맥을 같이 한다.

즉, 전쟁은 진화하여 그 형태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패배 원인을 진화된 형태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한다.<sup>11)</sup> 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비단 제4세대 전쟁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분명히 국가 간 전쟁이 존재했다. 미국의 제5군단과 제1해병원정군을 지상공격부대로 하여 “썬더런 전술”이라는 계획하에 기동전을 실행했다.<sup>12)</sup> 이후의 전쟁양상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다. 제4세대 전쟁 주창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라크 전쟁은 제3세대 전쟁과 제4세대 전쟁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은 설명이 어렵다.

둘째, 비국가 행위자가 전쟁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전쟁의 본질 또는 속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4세대 전쟁 주창자들에 의하면 전쟁의 본질과 속성이 변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질과 속성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비중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전쟁이다. 새로운 전쟁을 주장한 저명한 학자는 단연 독일의 뮌클러(Herfried Munkler)와 영국의 캘도어(Mary

9) William Lind et,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October), 1989, pp.22~26.

10)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p.18.

11) 위의 책, pp.231~232.

12) 오정석, 『이라크 전쟁』, 연경문화사, 2014, p.174.

Kaldor)를 들 수 있겠다. 뮌클러에 의하면 새로운 전쟁은 상업화와 민영화 그리고 비대칭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sup>13)</sup>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요소들과 선긋기에서 시작한다. 즉,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움을 이야기 한다.

한편, 켈도어는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목표와 전투방식, 재정조달 방식 등의 측면에서 이전의 전쟁과 구별되며 특히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정체성의 정치라고 한다.<sup>14)</sup> 정체성의 정치란 민족, 씨족, 종교 등의 바탕에서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낡은 전쟁에서 국가이익에 수반한 전쟁과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뮌클러는 전쟁의 동인을 경제적 이유에서 찾는 반면 켈도어는 정체성의 정치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탈냉전시대를 전후로 하여 전쟁양상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이 구별의 핵심에는 전쟁수행 주체인 “비국가 행위자”가 있다. 이들 역시 제4세대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지는 전쟁의 등장이 새롭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새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전쟁 이전의 전쟁은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정의된 전쟁이다.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의 개념에서 국가를 제외하니 기존의 전쟁과 다른 개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데 있다.

삼위일체는 변증법적인 논리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민으로 표현되는 인간본성의 적대감, 군대로 표현되는 전쟁 현실의 가변성, 정부로 표현되는 전쟁의 정책적 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변증법적 정반합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부처럼 비국가 행위자에게는 “정치적 행위자”가 존재하며, 삼위일체의 정책적 속성을 지녔다는

13) 헤어프리트 뮌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책세상, 2012, p.70.

14) 켈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pp.22~23.

15) 조한승(2010), p.164.

것에 변화가 없다. 이라크 전쟁 중 재래식 전쟁 이후 나타난 전쟁 양상을 새로운 전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배제하였다.

## 나. 대반란전

대반란전이란 “반란을 격멸하고 봉쇄하며 동시에 반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광범위한 민간 및 군사적 노력(a comprehensive civilian and military effort designed to simultaneously defeat and contain insurgency and address its root cause)”이라고 미 교범이 정의되어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을 택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반란전은 교리화된 실체이다. 비록 이 용어가 우리나라 교리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교리화하여 행동화 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제3기갑 여단장을 역임했던 맥마스터 대령의 “소탕-장악-구축”의 대반란전 수행을 모델화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대반란전 수행모델을 적용하여 2007년 종파한 이후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대반란전 수행모델의 적용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이라크에서의 전쟁수행방식이 대반란전이었던다는 근거를 강화해준다.

둘째,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전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 제4세대 전쟁이나 새로운 전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재래식 전쟁은 배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War”의 개념보다는 “Warfare”의 개념으로서 대반란전은 이전의 재래식 전쟁을 인정하게 해준다.

이라크 전쟁은 재래식 전쟁으로부터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를 하나의 전쟁으로 인식하며 변화의 원인을 지금부터 찾아 볼 것이다.

## 다. 분석의 틀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쟁 성공은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으로 인해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첫째, 저항의지이다. 부시대통령은 4월 16일 이라크 전쟁의 전쟁 승리를 선언했고, 5월 1일 주요전투작전의 종결을 선언했다.<sup>16)</sup> 후세인 정권은 축출되었으며 군사전략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는 남아있거나 생겨나게 되었다. 저항의지가 왜 남거나 생겼으며 저항의지의 크기는 이라크 전쟁 중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행위자이다. 위에서 언급한 저항의지는 그 의지 자체만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정치적 행위자는 의지를 모아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나 조직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들의 의지를 정책으로 발현하고,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검증받는다. 이라크전쟁에서 주요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국가기반의 정치적 행위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전이 나타난 것은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정치적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이다. 저항의지는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하여 실제화된다. 실제화의 산물은 저항세력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군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무력투쟁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 주요군사작전 종료 이후의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하여 어떤 저항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클라우드비즈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와 매우 유사

16) 오정석(2014), pp.498~499.

한 모습을 보인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

출처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p.82.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전쟁의 속성으로 여겨진다.<sup>17)</sup> 크레펠드 등 일부 학자는 전쟁양상이 변화하며 삼위일체의 분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sup>18)</sup>하지만 필자는 각각의 행위자만 달라졌을 뿐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본고의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 및 그들의 결합은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저항의지는 결국 국민의 폭력성이다. 전쟁론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원시적 폭력성”은 “맹렬한 본능”으로 주로 “인민”을 향한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종료 이후 남아있던 저항

17) 군사기본교리에서 전쟁의 속성은 이성, 감정, 지적 모험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만수 역 전쟁론에서 기술된 지성은 이성을, 폭력성은 감성을, 우연/개연성은 지적모험성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 2014, pp.1-26~1-27.

18) Crevel, Martin van, 『Global Insurgency and the Future of Armed Conflict Debating fourth-generation warfare』, Routledge, 2008, p.55.

의지는 바로 이 “폭력성”과 같다.<sup>19)</sup>

둘째, 정치적 행위자는 결국 정부의 지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론에서 언급된 주로 “정부”라고 표현된 행위자는 반드시 “정부”일 필요는 없다. 전쟁을 “순수한 지성”의 영역으로 속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sup>20)</sup> 즉,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지성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론에서 행위자를 기술할 때 “주로”라는 부사가 사용되어 사고의 고착을 막은 것이다.

셋째,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저항세력은 결국 군대의 우연 및 개연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행위자는 저항의지를 통합한다. 그리고 그 의지의 실체로서 저항세력을 조직한다. 즉, 테러집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집단은 정치적 행위자의 군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역시 우연 및 개연성의 영역에 종속된다.

위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재구성하자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이라크 전쟁 재래식전쟁 종료 이후의 경이로운 삼위일체

19)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2016), p.82.

20) 위의 책, p.82.

폭력성을 저항의지로, 지성의 행위자인 정부를 정치적 행위자로, 우연/개연성의 행위자를 군대에서 저항세력으로 변경하였을 뿐,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의 변증법적 사고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전쟁 종료 이후의 상황을 위의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카멜레온과 같은 전쟁양상의 변화 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

### 3. 이라크 전쟁의 양상

본 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진행경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이라크전쟁 시 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아래의 3단계로 구분한다.

<표 1> 이라크전쟁시 연합군 작전계획<sup>21)</sup>

| 구 분                   | 핵심 작전                                                                                                                             |
|-----------------------|-----------------------------------------------------------------------------------------------------------------------------------|
| 제1단계 : 전쟁준비<br>(여건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전환(반전)</li> <li>· 이라크 내부분열 유도 및 이라크군 점진적 약화</li> <li>· 군사력 사전 전개</li> </ul> |
| 제2단계 : 결정적 작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세인」 제거(참수작전)</li> <li>· 지상군 조기투입, 바그다드 직접공략</li> <li>· 잔여세력 격멸</li> </ul>              |
| 제3단계 : 안정화작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력 재배치</li> <li>· 이라크 재건 및 과도정부 수립 지원</li> </ul>                                        |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이라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03년 5월 1일 군사작전 종료 발표 전과 후를 구분하여 2단계와 3단계의 작전경과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21)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국군인쇄창, 2012, p.10-303-275.

## 가. 제2단계 결정적 작전 : 재래식 전쟁

전쟁은 후세인 참수작전으로 시작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다.<sup>22)</sup> 최후통첩이 만료된 2003년 3월 20일 이른 시각 부시 행정부는 15~1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후세인이 위치한 도라농장 공격을 계획했다. 하지만 도라농장이 병거화되어 있어 이를 파괴하기 위해 F-117 전투기의 E-GBU27(Enhanced Guided Bomb Unit-27) 폭탄투하가 필요하다는 군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승인했다.<sup>23)</sup> 하지만 후세인 일가를 격멸하는 데 실패했다.

참수작전의 실패로 공격기도를 노출한 미군은 이라크의 남부유전 파괴를 우려하여 계획보다 빠르게 지상군의 공격을 개시하였다. 육군 제5군단과 제1해병원정군은 3월 20일 야간에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공격을 넘어 이라크 영토로 진입하였다.<sup>24)</sup> 공군은 지상군의 진격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 불리는 작전명으로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의 전의를 말살하고 이라크 지상전력의 이동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전략폭격과 전장차단 및 전술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sup>25)</sup>

제5군단은 주공으로서 신속하게 서부도로를 따라 바그다드로 진격했고, 예하의 3보병사단은 4월 4일 사담국제공항에 이르렀다. 4월 5일부터 기갑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한 썬더런 작전을 개시하며, 바그다드의 저항정도를 판단한 후 4월 7일 2차 썬더런 작전을 통해 바그다드를 함락하였다.<sup>26)</sup> 미군의 군사작전은 4월 15일 시점에서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4월 16일 부시 대통령은 전쟁승리를 선언했

22) President Says Saddam Hussein Must Leave Iraq Within 48Hours,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3/20030317-7.html>(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23) Walter L.Perry et, 『Operation IRAQI FREEDOM, Decisive War, Elusive Peace』, RAND corporation, 2015, pp.59-60.

24) 오정석(2014), p.245.

25)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p.62.

26)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 자유작전 美의회 보고서』, 국군인쇄창, 2013, p.66.

다. 5월 1일에는 이라크에서 주요전투작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sup>27)</sup>

#### 나. 제3단계 안정화 작전 : 대반란전

바그다드로 진군한 미군의 수는 약 25,000명 정도였다. 바그다드에 거주하는 이라크 주민이 약 600만 명이였기 때문에 1명의 미군은 240여 명의 이라크인을 감당해야 했다.<sup>28)</sup> 4월 9일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린 시점부터 바그다드에서의 약탈은 보다 심각해졌다. 후세인 지지세력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가 약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병력의 미군은 이러한 약탈을 저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세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했던 모든 행정데이터도 손실되었다.<sup>29)</sup> 행정데이터의 손실은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을 창설했다. 이라크 국민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반길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판단으로 인해 ORHA는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내 2003년 5월 연합군임시행정청(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으로 대체되었다.<sup>30)</sup>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결의안 1483호<sup>31)</sup>를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받게 되었다. CPA는 이라크에서 장기점령정책을 펼치기 위해 임시행정청령 1호를 발령하여 5월 16일 후세인 정권의 바트당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5월 23일 임시행정청령 2호를 발령하여 이라크 군대

27)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검색일 : 2018년 12월 6일)

28) 손석현(2014), p.89.

29) 이근욱, 『이라크 전쟁』, 한울, 2011, p.114.

30) 위의 책, p.117.

31)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검색일 : 2018년 12월 3일)

를 무조건 해산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sup>32)</sup>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바트당은 수니파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바트당의 숙청은 수니파의 숙청으로 비춰지며 종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라크 정규군의 해산 조치로 인해 약 60만 명의 군인이 실직하였으며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세력화 되기 시작했다.<sup>33)</sup>

이러한 상황의 악화를 증명하듯 2004년 3월 31일 이라크의 팔루자지에서 근무하던 블랙워터사의 보안요원이 살해되고 시체는 훼손되어 팔루자지의 남서쪽 브룩클린교에 매달렸다. 그러면서 수니파 극단주의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1차 팔루자 전투가 시행되었다.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저항세력들과의 타협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저항세력의 승리로 여겨져 팔루자시로 더 많은 저항세력들이 몰려들었다.<sup>34)</sup> 이는 2004년 11월 2차 팔루자 전투로 이어졌다. 팔루자에서 수니파와 갈등이 있었다면, 나자프에서는 시아파와의 갈등도 있었다. 미군의 철군을 주장하는 시아파 성직자들을 주축으로 나자프에서의 소요사태는 미군을 보다 곤경에 빠트렸다.<sup>35)</sup>

2005년 탈 아파르(Tal Afar)에서는 제3기갑연대장으로 맥마스터 대령이 작전에 투입하며 대반란전(COIN: Counter Insurgency) 접근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sup>36)</sup> 하지만 전과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2006년 2월 22일에는 시아파의 성지인 알아스카리 사원이 폭파되며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내전은 보다 격화되었다.<sup>37)</sup>

부시행정부는 결국 2007년 증파를 발표하며 대반란전의 적극수행을 천명하였다.<sup>38)</sup> 5개 여단전투단, 1개 육군 전투항공여단, 1개

32) Walter L.Perry et.(2015), pp.240~241.

33) Rajiv Chandrasekaran, 『Imperial Life in the Emerald City』,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6, pp.73~77.

34) 오정석(2014), pp.558~603.

35) 위의 책, pp.604~607.

36) 육군군사연구소(2013), pp.109~112.

37) 이근욱(2011), p.207.

해병원정대, 2개 해병 보병대대, 1개 사단 본부 등의 병력을 바그다드로 증파하였다.<sup>39)</sup> 증파된 병력과 이라크 보안군은 합동치안초소와 전투초소를 설치하고 수니파와 시아파 지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장벽을 쌓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라크의 상황을 점차 안정화시켰다.<sup>40)</sup> 이후 2009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는 2010년 8월 31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sup>41)</sup>

## 4. 전쟁양상 변화 원인

### 가. 저항의지

이라크 전쟁에서 저항의지는 재래식 전쟁 기간과 대반란전 기간 그리고 대반란전 여명기(이하, Interwarfare<sup>42)</sup>)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재래식 전쟁 기간의 저항의지는 그리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당시 25년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후세인 대통령의 폭군정치를 받기는 이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낙관론이었는데, 이라크인들은 미국인을 해방자로 인식하여 반길 것이라고 판단했다.<sup>43)</sup> 따라서 재래식 전쟁기간의 이라크 저항의지는

---

38)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7/01/20070110-03.html>(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39) 육군군사연구소(2013), p.119.

40) 이근욱(2011), pp.279~281.

4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0/08/31/remarks-president-address-nation-end-combat-operations-iraq>(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42)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Interwar period"로 표현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 사이의 기간을 "Interwarfare"로 표현했다.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바트당과 그들을 지원하는 소수에 의해 작게 나타난다. 저항의지의 부족은 전쟁의 지속성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군사작전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한편, 필자가 “Interwarfare”로 표기한 이 기간 중에도 저항의지는 작았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작은 의지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라크인들은 전쟁 중 보여준 미국의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수행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라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up>44)</sup>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군사작전의 종료를 선포한 이후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의 낙관론적 관점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제3보병사단 2전투여단장이었던 데이비드 퍼킨스 대령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해준다.<sup>45)</sup>

“바그다드 입성 직후, 우리가 도시를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이 완성되고 모든 자원을 사용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원을 사용할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반란세력들이 그 기회를 막아버렸다. 2003년 9월에 시작했던 계획을 2003년 4월에 시작했다면 아마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의 군사작전 종료 후 저항의지는 점차 증대된다. 미국은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초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을 통해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소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무용 집기가 사라지고 감옥의 죄수들은 탈옥하였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축적했던 행정데이터도 사라졌다.<sup>46)</sup> 이런 상황이 지

43) 이근욱(2011), p.92.

44) 손석현(2014), p.94.

45) Dr. Donald P. Wright, Colonel Timohy R. Reese, 『On Point II』, CSI Press, 2008, p.89.

46) 손석현(2014), p.91.

속되자 이라크 국민들은 점차 그들의 분노 대상을 찾게 되었다. 후세인의 폭군정치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자 그 분노는 미국을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의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건 및 인도지원청(ORHA)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으로 변경되었고, 책임자는 가너에서 폴 그래머로 변경되었다.<sup>47)</sup> 폴 그래머는 가너의 점령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이라크 장기점령정책을 시작하며 연합군 임시행정청령 1호와 2호를 통해 바트당을 청산하고 이라크 정규군을 강제해산시켰다.<sup>48)</sup> 이 사건으로 저항의지는 폭발하게 된다. 비단 이라크 내의 수니파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규군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던 시아파 국민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폭력성과 연결된다. 폭력성은 전쟁을 지속하는 힘을 갖게 해준다. 초기 군사작전에서 낮은 수준의 저항의지는 적어도 군사작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점령정책의 표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극대화된 저항의지는 종파분쟁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커졌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자와 연결되며 대반란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양상을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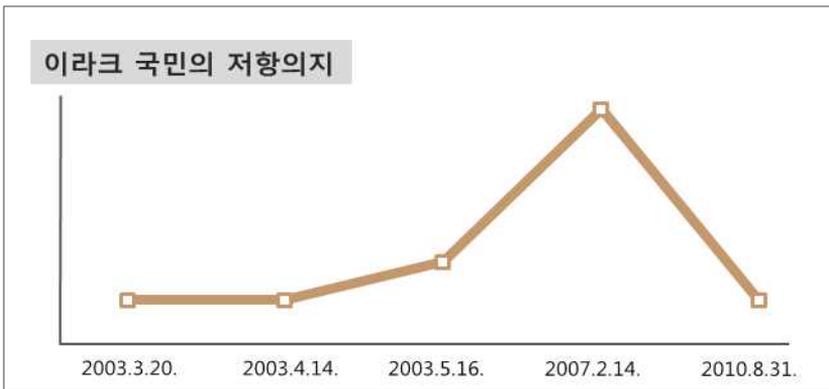
그렇다면 저항의지는 왜 생기는 것인가?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의 연례보고인 분쟁의 바로미터에 의하면 분쟁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가장 빈번한 분쟁원인은 체제/이념이고, 그 다음은 자원, 그리고 국가권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원인들은 1개가 독자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로 분쟁으로 실체화되기도 한다.<sup>49)</sup>

47) 오정석(2014), p.502.

48) 위의 책, p.503.

49)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역, 『분쟁의 바로미터 2010』, 육

이라크에서의 저항의지를 분쟁으로 바라본다면 위의 원인들을 저항의지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될 때 비로소 분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행위자와의 결합 이전의 저항의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치안질서로 판단할 수 있다. 치안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은 약탈과 방화 폭행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어려운 삶이 전쟁의 폭력성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이후 치안 질서 확립의 실패는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로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를 도식화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이라크 국민의 저항의지 변화 그래프

재래식 전쟁이 진행되던 2003년 3월 20일부터 2003년 4월 14일 사이의 저항의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치안질서의 확립실패로 점차 저항의지가 증대되던 중 임시행정청의 바트당 해산과 이라크 정규군대 해산은 저항의지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후 2007년

2월 14일 미국은 증파를 실시하여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저항세력을 제거하며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실질적인 재래식전쟁이 종료된 2003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치안질서를 확립했다면 전쟁양상은 대반란전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라크 국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증가하는 때에 미국은 이를 방관하였고 이 저항의지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저항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자는 그들을 정치적 행위자로 정의한다.

#### 나. 정치적 행위자

이라크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는 크게 4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재래식 전쟁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고, 둘째는 임시행정청(CPA)의 바트당 청산으로부터 비롯된 바트당 핵심세력, 셋째는 최초 미군을 반겼지만 후세인 정권 전복 이후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성직자 단체<sup>50)</sup>, 넷째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며 알자르카위를 중심으로 이라크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알카에다이다.<sup>51)</sup> 이 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다. 이라크 전쟁의 재래식 전쟁 양상이 나타날 시 정치적 행위자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었다. 당시

---

50) 이라크에서의 종파분쟁은 이라크전쟁을 장기화 시킨 원인은 맞지만, 이라크 전쟁의 주요군사작전이 종결된 시점에서 종파분쟁이 바로 발현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시아파 성직자 단체는 수니파보다도 미군에 대한 반감이 컸다.(이라크 전쟁의 주요 군사작전이 끝나고 알사드르는 “작은 뱀이 떠나고 큰 뱀이 왔다.”고 표현하며 큰 뱀을 미국에 비유했다.

<https://www.cbsnews.com/news/muqtada-sadrs-battle-against-us/>(검색일 : 2019년 2월 7일)

51) 손석현(2014), pp.104~108.

이라크 정부는 1968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통령은 1979년 이후부터 후세인 대통령이였다. 후세인 대통령은 독재정치를 펼쳤으며 대다수가 시아파(65%)로 구성된 이라크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받았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실시하며 시아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국력을 낭비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직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sup>52)</sup> 이라크 국민들은 후세인 정권의 정책을 달갑게 받아들일 리 없었다. 비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이전 이라크의 정치적 행위자가 후세인 정권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2003년 3월 20일 침공을 개시했다. 후세인 정권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전쟁에 임했으나 압도적인 첨단과학이 접목된 연합국의 무기체계 앞에 이라크는 무릎을 꿇었다. 2003년 4월 14일 14:31분 미국의 M1A1 전차가 티크리트 중심부의 광장을 점령하며 이라크의 조직적인 저항은 완전히 끝났다.<sup>53)</sup>

두 번째, 바트당 핵심세력이다. 2003년 5월 1일 부시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 이라크 주요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이라크 전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sup>54)</sup> 하지만 당시의 이라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유엔에서는 미국에 점령국 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공식화하였다.<sup>55)</sup> 미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을 설치하여 이라크 통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임시행정청 명령 1호와 2호를 통해 바트당과 이라크 정규군을 해산시켰다. 이라크 국민들은 악화되는 치안 상황속에서 저항의지가 증대되었다. 하지만 아직 저항의지를

52) 손석현(2014), pp.26~34.

53) 오정석(2014), p.495.

54)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검색일 : 2018년 12월 6일)

55)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검색일 '18. 12. 3.)



지도자 중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7)</sup> 최초부터 반미주의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커지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성직자들이라는 정치적 행위자와 만나며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시아파 성직자 단체들로 인해 구성되는 저항세력들의 활동은 최초 수니파를 향하였으나 이는 점점 극단적 반미태도로 변질되어 미국을 떠나게 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조직화 되었다.

네 번째는 알카에다이다.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 알카에다는 활동하지 못했다. 후세인 정권은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철저히 억압했기 때문이다.<sup>58)</sup>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자 알자르카위는 이라크에서 알카에다를 창설한다.<sup>59)</sup> 주로 수니파 이슬람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정치적 행위자로 들어선다. 여기에 저항의지를 가진 인원들이 이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에 동조하며 저항세력화되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성공적인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후 이라크 치안상황이 나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바트당 핵심세력과 시아파 성직자, 알카에다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자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지성 영역의 행위자가 되었다. 이들은 기존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였다. 이들의 등장은 결국 또 다른 전쟁의 양상을 만들게 된 것이다.

57) 손석현(2014), p.106.

58) SSCI(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Report on postwar findings about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terrorism and how they compare with prewar assessments』, SSCI 109th congress, 2006, p.63. 위자료의 원문은 <https://www.intelligence.senate.gov/sites/default/file/publications/109331.pdf>에서 찾을 수 있음.

59) 이근욱(2011), pp.219~220.

#### 다.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

재래식 전쟁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평화의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상황악화는 저항의지를 증폭시켰다. 거기에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바트당 핵심당원들은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의 바트당 해산 명령 이후 수니파의 저항의지를 활용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삶, 약탈, 방화 등 치안상황의 불안정을 모두 미국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리고 강제 해산된 이라크 정규군대는 분노를 표출할 장소를 찾고 있던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이렇게 수니파 반란세력이 만들어졌다. 즉,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바트당 핵심세력을 만나며 저항세력화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예견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미군은 대반란전을 시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전쟁은 대반란전의 양상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아직 재래식 전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알사드르를 주축으로 하는 시아파 성직자들은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통해 민병대를 만들었다. 이 민병대는 시아파 성직자라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군대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미국의 점령에 저항했으며 한편으로는 수니파와의 종교적 대결을 병행했다. 여기에 과거부터 후세인 정권에 대항했던 비밀 군사조직인 바드르 군단이 합류했다.<sup>60)</sup>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시아파 성직자들의 만남은 또 다시 반란세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알카에다는 미국의 재래식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이라크 내에 뿌리를 내린다. 알자르카위를 핵심으로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출신 수니파 인원들로 알카에다를 이라크에 창설한다. 이 알카에다는 또 다시 수니파 극단주의자의 저항의지를 포

60) 손석현(2014), pp.106~107.

섭한다. 알카에다를 핵심으로 한 저항세력은 테러와 참수 등 잔혹한 방법을 통해 반란전을 수행하였다.

결국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를 만나며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재래식 전쟁, interwarfare, 대반란전의 단계 별로 나누어 표현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이라크 전쟁 단계별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변화과정

재래식 전쟁의 단계에서 이라크 국민의 폭력성 즉 저항의지는 미미했으나, 후세인 정권이라고 하는 지성과 이라크 정규군이라고 하는 우연/개연성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재래식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약한 저항의지는 전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래식 전쟁을 통해 후세인 정권이 제거되자 지성의 영역을 담당할 행위자가 없어졌다. 이 때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이라크 정규군은 아직 남아있었으나 정치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상호작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Interwarfare기간에 전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저항의지를 이용, 반란세력을 조직했다. 여기에 악화되는 이라크 치안상황은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점차 키웠고, 전쟁의 지속성을 유지시켰다.

이제 다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전쟁 속성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다. 비록 그 행위자의 차이로 인해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삼위일체가 정반합의 조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명백하게 전쟁의 속성을 나타냈다. 지성과 우연/개연성을 담당하는 행위자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전쟁수행 양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양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수니파와의 충돌인 제1차 팔루자 전투가 이루어졌으며, 시아파의 마흐디군은 2004년 4월 연합군에 폭동을 일으켰다. 알카에다의 테러가 자행되며 미국의 고전은 시작되었다.

## 5. 우리에게 주는 함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라크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대반란전의 두 가지 전쟁양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재래식 전쟁은 대반란전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전쟁양상의 변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sup>61)</sup> 전시 우리는 북한지역으로 공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자유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화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재래식 전쟁이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쟁양상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던 미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준다.

---

61)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 1451. 위 판결문은 <https://casenote.kr/>에서 접속할 수 있다. (검색일 : 2018년 12월 7일)

첫 번째,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종료된 이후 북한 주민의 저항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저항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분쟁의 바로미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념/체제, 국가권력, 자원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며 저항의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념/체제보다도 치안질서의 확립에 있다. 나의 생활이 윤택하고 평화롭다면 저항의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던 약탈과 불안정한 상황이 분란의 원인들과 결합하며 저항의지화 된 것이다. 따라서 저항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치안질서를 먼저 살펴야 한다.

두 번째, 저항의지가 실체화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저항의지 자체로 반란전이 일으켜지지 않는다. 저항의지를 조정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했을 때 비로소 저항세력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는 기존의 정권세력과 군대였다. 이들을 적대세력화시키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빠른 결심이 필요하다. 주요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우리는 안정화 작전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안정화 작전은 넓은 의미의 대반란전에 포함되는 용어로 대반란전 작전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62)</sup> 이라크 전쟁에서 바라본 전쟁양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라크 전쟁은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점점 더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갔다. 북한지역에서도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가 등장한다면 저항세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들은 대반란전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

62)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p.99.

쟁양상이 변화하였을 때 2007년 미국의 증파 결심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조기에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 6. 결론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의 성공 이후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된 추동요인을 경이로운 삼위일체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 이후의 전쟁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체가 된 전쟁이었지만 필자는 이를 제4세대 전쟁이나 새로운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재로서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보았다. 그에 따라 재래식 전쟁 이후의 변화된 전쟁양상을 대반란전으로 해석했다.

이 대반란전으로 변화된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필자는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할 때 반란전이 발생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대반란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한다고 가설을 설정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는 유용한 분석의 틀로서 역할을 했다. 저항의지는 폭력성과 상통하였고 정치적 행위자는 지성의 행위자였으며, 이 둘의 결합으로 나타난 저항세력은 우연/개연성의 행위자였다. 이들 사이의 변증법적 연결이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며 전쟁양상을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전쟁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2003년 4월 14일 티크리트에서의 작전을 끝으로 이라크 정규군의 조직적 저항은 막을 내렸고, 재래식 전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능력에 감탄하며 평화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침공 이전보다 더 피폐해지고, 약탈이 빈번하며 치안의 불안정은 가속화되었다. 이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 전 정권이었던 바트당을 강제 청산하고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연합국 임시행정청의 조치가 단행되자 바트당 핵심세력은 정치적 행위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여기에 저항의지를 가진 이라크의 수니파 국민들이 결합하여 저항세력을 만들었다. 시아파 성직자들도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며 알사드르를 중심으로 이라크 시아파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결합하여 민병대와 바드르 군단 등 저항세력을 조직했다. 지난 이라크 정권에서는 억압에 의해 모습을 감추었던 알카에다도 등장한다. 알자르카위를 수장으로 알카에다는 시리아로부터 넘어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정치적 행위자로 조직을 형성하고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의 저항의지를 결합했다. 그 결과 테러단체를 조직하였고 이라크에서도 하나의 반란세력으로 활동했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 그리고 저항세력은 전쟁의 속성을 충족하였다. 삼위일체 속성들의 변증법적 결합은 대반란전이라고 하는 재래식 전쟁과는 다른 전쟁양상을 만들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위기를 초래했다. 재래식 전쟁의 성공 이후 미국은 기회가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쳤고, 대반란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수많은 미군과 이라크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2007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정하면서 증파를 하게 되자 비로소 이라크 전쟁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의 가설처럼 저항의지는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되며 저항세력을 만들고 이는 전쟁양상을 변화시켰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 있다.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첫째, 저항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저항의지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저항의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위자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항세력과 정치적 행위자가 결합되었다고 하

더라도 전쟁양상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군사 및 비  
군사 대응을 강화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2.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이라크 전쟁, 전쟁양상, 대반란전, 제4세대 전쟁, 새로운 전쟁

## <참 고 문 헌>

### <국 문>

- 켈도어, 유강은 역,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 그린비 출판사, 2010.
- 손석현, 『대반란전(COIN) 전사연구-미국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오정석, 『이라크 전쟁』, 연경문화사, 2014.
- 육군군사연구소, 『이라크 자유작전 美의회 보고서』, 국군인쇄창, 2013.
- 이근욱, 『이라크 전쟁』, 한울, 2011.
-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5.
- 전갑기 외 3명, 『2014년 돈바스 전쟁의 작전경과 및 작전적 특성』, 육군군사연구소, 2018.
- 조한승,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한 4세대 전쟁 주창자들의 비판 고찰』, 대한정치학회, 2010.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갈무리, 2016.
- 토마스 햄즈, 최종철 역, 『21세기 제4세대 전쟁』, 경성문화사, 2008.
-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 육군군사연구소 역, 『분쟁의 바로미터 2010』, 육군 군사연구소, 2012.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0, 군사기분교리』, 2014.
- 합동군사대학교, 『세계전쟁사(하)』, 국군인쇄창, 2012.
- 헤어프리트 뮌클러, 공진성 역, 『새로운 전쟁』, 책세상, 2012.

### <영 문>

- Crevelde, Martin van, 『Global Insurgency and the Future of Armed Conflict Debating fourth-generation warfare』, Routledge, 2008.
- Donald P. Wright, Colonel Timothy R. Reese, 『On Point II』, CSI Press, 2008.
- Rajiv Chandrasekaran, 『Imperial Life in the Emerald City』,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6.

SSCI(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report, 『*Report on postwar findings about iraq's wmd programs and links to terrorism and how they compare with prewar assessments*』, SSCI 109th congress, 2006.

The White House, 『*National Archives*』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3/20030317-7.html>>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3/05/20030501-15.html>>

<<http://www.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7/01/20070110-03.html>>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0/08/31/remarks-president-address-nation-end-combat-operations-iraq>>

United Nations, 『*Resolution 1483(2003)*』

<<http://www.un.org/depts/unmovic/new/documents/resolutions/s-res-1483>>

William Lind et,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zate(October), 1989.

Walter L.Perry et, 『*Operation IRAQI FREEDOM, Decisive War, Elusive Peace*』, RAND corporation, 2015.

<웹사이트>

<http://www.worldometers.info/geography/how-many-countries-are-there-in-the-world/>

<https://jamestown.org/program/muqtada-al-sadr-religious-strategy-complicates-jaysh-almahdi-ceasefire/>

<https://casenote.kr/>

<https://www.cbsnews.com/news/muqtada-sadr-battle-against-us/>

<Abstract>

## A Study on the Causes for the Change of the feature in the Iraq War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resistance will and  
political actors -

Kim, Hyun-Sick

The Iraq war was the one in which both conventional war, which was a national war, and non-conventional war, which was a war with non-state actors at the same time. The coali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conducted a highly effective conventional warfare using weapons systems combined with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 the insurgency began to be organized and the warfare changed into a counterinsurgency phase. As can be seen in the Donbass war in 2014, it is hard to imagine that a war between nations will not take place in the modern era where there are 195 nations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war can change during the war. In this sense, the war in Iraq, which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war, has many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what causes of warfare have changed in Iraq during the war".

To prove this, I have illuminated "resistance will", "political actors" and the "resistance" during the Iraq War using Clausewitz's "trinity"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e will of the Iraqi people to resist and the political actors changed during the war. After the conventional warfare, the Iraqi army was forced to dissolve, but new resistance came to the surface and the war came to a new phase. This study proved through the marvelous trinity that the war pattern changed during the Iraq war. And the cause of the change is that when the resistance will of the people is combined with the political actors, it shows the nature of the war completely. In order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enemy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ecurity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warfare an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political actors.

Key words : Iraq war, Counter insurgency, Warfare, the 4th generation war,  
new wars